

제 15 권 양자 삼으심

1. 양자됨의 중요성

출처: *The Reformed Doctrine of Adoption*, Sprinkle Publication, www.sprinklepublications.net.

저자: 로버트 알렉산더 웹 (1856-1919): 장로교 신학자이자 목사; 미국 미시시피 옥스포드 출생

역자: 조상철

복음적인 교리에서 양자됨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특권을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됨의 교리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홀대를 받아왔다. 양자됨이 지니는 본질적인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단지 복음적인 진리 체계 안에서 삼입구 정도의 종속적인 의미로 취급을 받아왔다. 양자 교리와 조화되는 칭의 교리는 철저하고 충분하게 다루어져 왔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이 위대한 양자됨의 교리 및 그 발전을 다룬 책은 없다. 지금까지 복음의 교리 전체를 다룬다고 하며 나온 위대한 책들 중 대다수는 양자됨에 대한 교리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일부 책들이 양자됨의 교리를 다루기는 하지만 부수적으로 잠시 살펴보는 선에서 그칠 뿐, 그 교리를 구별된 주제로 다루는 책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칼빈은 양자됨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다. 또한 프랜시스 튜렌틴 (Frances Turrentin)은 양자됨을 칭의의 두 번째 요소-즉, 칭의된 사람을 받아들임-로 규정하면서 구원론(soteriology)에 있어서 이 위대한 주제를 소홀히 여긴다. 기독교의 위대한 신앙 고백 중 양자됨을 한 장(章)으로 공식적으로 따로 구별하여 다루거나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 제 12장을 이 주제에 할애했을 뿐이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교리는 여러 신앙 고백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고백서의 몇 군데에서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설명하는 문구가 발견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제33문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친아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입양된 자녀들이다”라고 가르친다. 영국 국교의 39개 신조는 택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에 더하여 “양자됨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인해 얻어지는 여러 은혜 중 하나로서 칭의와 성화의 은혜와 함께 양자됨의 은혜를 공식적으로 제시한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및 소요리 문답은 양자됨을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하며 분명한 설명과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진리와 사실에 근거해서 볼 때, 양자됨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하고 귀중한 항목으로 인정받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렇게 다루어져야 할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

1) 양자됨은 성경적인 용어이고 성경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 성경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언어적인 표현으로서 양자됨을 사용하셨다. 이 사실은 결코 소홀히 여겨질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그

들을 양자삼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그는 양자됨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확증한 복으로서 때가 차매 그의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심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갈4:4) 함이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모든 나라로부터 선택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은 바 됨으로써 최고의 구별됨과 특권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참 이스라엘이며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도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롬9:4). 또한 성경은 창조된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으며 어떤 사건의 임박을 바라는데, 즉 “양자의 영”에 의해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며 괴로움 속에 몸부림 치고 있다고 말한다(롬8:14-23).

2) 양자됨의 교리는 예정, 속죄, 신령한 삶, 그리고 전 우주의 절정과 완성과 매우 밀접하게 근본적으로 연관된다. 양자됨은 성경적인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에 신학에서 양자됨을 무시하거나 구원의 진리의 계획에 종속된 하나의 삼입구조로 치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양자됨은 어떤 의미에서 전체 구속의 과정의 절정이자 영광이다. 죄 많은 인간이 양자됨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리도록 용납된다는 것은 구속의 복의 정점이자 절정이다.

3)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에 상응해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관계의 소중함을 생각할 때, 양자됨이 지니는 중요성은 더욱 확고해진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의 백성들의 “아버지”로 계시하고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공표한다. 그리고 복음의 체계에서, ‘양자됨’은 복음에 있어서 가장 매력적이고 영감을 주는 특징들 중 하나로 지칭되어왔다. 하나님의 아버지됨의 개념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감동을 준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써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비록 죄인이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 기뻐하도록 함으로 가장 큰 평안과 만족을 준다. 빌립이 우리 주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요14:8)라고 말하였다. 만약 빌립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았다면 그는 만족하였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누구라도 그런 사실을 의식한다면 기뻐하며 만족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실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버지됨으로써 주시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누리는 모든 다정함이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고 많은 어려움들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슬퍼하는 대신 자비로운 아버지께 손을 내밀게 된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가 죽음의 천사에게 목숨을 빼앗길지라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있음을 알고 기뻐할 수 있다. 죽음의 문을 지나 육신의 장막을 벗는 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별 너머 밝게 빛나는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우리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신자들의 양자됨, 모든 믿는 자들의 형제 사랑, 믿음의 권속들,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 등,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귀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이 모든 영광스러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양자됨의 은혜 때문이다. 양자

됨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을 천국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준다. 양자됨은 죄의 종된 신분과 책임에서 벗어나게 한다. 양자됨은 빛나는 하나님 보좌를 섬기는 영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준다. 이 모든 축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된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는(벧전1:4) 상속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그에게 총만하게 임한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라면 양자됨은 마땅히 구별되어 모두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귀중한 교리다.

4) 양자됨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계획에서 맡고 있는 독특한 역할을 고려해 볼 때, 그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창조되었다(눅3:38). 그는 한편으로 신성한 왕국의 일원이자 다른 한편으로 신성한 가족의 일원이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의 아버지이자 친구인 동시에 주(Lord)이자 통치자이셨다. 이 두 관계 속에서, 사람(아담)은 시험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된 입장에서 사람(아담)이 시험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이 가장 총애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험을 받게 되었다. 즉, 두 가지 입장에서 시험을 받았다. 애석하게도, 그(아담)는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어 이 두 관계 모두에서 실패하였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아들로써의 지위도 상실하게 되었다. 최초의 타락 이후, 죄인된 그(아담)의 지위는 왕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된 범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집에서 버림받고 상속권을 박탈당한 아들이 되었다.

오늘날 인간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자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지금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이 두 관계의 회복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합법적인 시민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과 하나님의 집의 자녀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회복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현재 인간들이 던져야 할 중대하고 실질적인 질문이다. 이 이중 질문에 대해, 복음은 영원하면서도 영광스러운 해답을 제시한다. 복음은 은혜의 행위로서의 칭의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정죄 받고 추방당한 죄인들의 시민권을 회복시켜 그들을 주(Lord)이자 주인되시는 하나님의 호의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의 행위로서의 양자됨은 쫓겨나서 버림받은 아들을 아버지이자 친구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다시 받아준다. 전자는 죄인이 잃었던 시민권을 회복시켜주는 은혜이고 후자는 죄인이 잃었던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주는 은혜이다. 다시 말해, 칭의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모든 권리와 특권을 부여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며, 양자됨은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 칭의는 죄의 종된 관계를 청산하고, 양자됨은 추방된 자녀의 문제를 종결시킨다. 칭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회복시키고,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킨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악된 인류는 자녀로서의 권리와 관계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마음과 정신도 잃었다. 다시 말해,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자질도 상실했다. 인류는 이제 자녀로서의 신분뿐만 아니라 자녀로서의 영도 다시 회복해야

하는 문제에 빠져 있다.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은혜의 행위로서, 죄인에게 잃었던 자녀의 마음을 다시 심어준다. 양자됨은 은혜의 행위로서, 죄인에게 자녀로서 지위를 회복시켜준다. 거듭남으로 인해 자녀의 마음을 받게 되고, 양자됨으로 인해 자녀의 권리를 받게 된다. 양자됨으로 자녀로서의 합법적인 권리와 특권을 가지게 되고, 거듭남으로 합법적인 자녀의 지위에 어울리는 합당한 자녀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처럼 양자됨은 한쪽으로는 칭의와 연결되고 다른 쪽으로는 거듭남과 연결된다. 이런 이유에서 양자됨을 기독교 교리의 독립 조항으로서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2. 순전한 은혜의 행위

출처: 스트랜드(Strand)에 있는 엑서터 홀(Exeter Hall)에서 전한 설교

저자: 찰스 스펀전 (1384-1892) : 영향력 있던 영국 침례교 목사. 영국 에섹스 켈비돈 출생
역자: 김선형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엡 1:5)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무엇을 하시든지, 그가 영원 속에서 예정했다는 것은 성경 교리인 동시에 상식이다. 어떤 사람들은 신령한 예정에 관해 흠잡고 영원한 목적의 정당성에 도전한다. 자, 만약 그들이 예정은, 설계 계획으로서 역사의 부분(副本)이고, 일어난 사실들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설계의 실행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그들의 적개심의 불합리성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신자라 주장하는 이들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트집 잡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의 주권의 공정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는 말은 들었다. 만약 어떤 사실 자체가 옳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고 의도하신 것은 옳은 것이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실을 바라볼 때 어떤 흠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실을 작정(作定)한 예정에 대해 불평할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작정과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구원하길 기뻐하셨는데 그를 흠잡을 이유가 있을까? 당신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흠잡으려고 하는가? 만일 당신이 어떤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왜 그 사실과 관련한 작정을 반대해야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예정의 영향으로 실제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 어떤 흠도 찾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 흠잡으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섭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를 인정한다면, 의도적으로 흠잡으려는 것 외에 그 섭리와 관련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흠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당신은 이 아침에 내가 설교를 했다고 나를 비난할 것인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간밤에 설교할 결심을 했다고 해서 나를 힐난하겠는가? 당신은 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 내가 설교한다고 해서 나를 책망하겠는가? 원한다면 책망하라. 그러나 내가 그렇게 의도한 것에 대해 유죄를 밝혀달라. 하지만 만일 내가 그러한 주제를 택한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한다면, 당신은 내가 그 주제에 대해 설교할 의향을 가진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확실히 말해,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예정의 직접적인 결과에서 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예정에서도 흠을 찾지 못할 것이다.

자, 나는 다시 단언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적시에 이루고자 하셨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의도하셨다] 또한 그런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배웠다. 만일 내가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이 세상 이 전에 이미 그것을 의도하셨다고 믿는다. 만일 하나님이 자비하심 가운데 나를 중생시키셨다면, 나는 하나님이 영원 전에 내가 거듭나도록 의도하셨다고 믿는다. 그리고 만일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고 마침내 하늘나라로 이끄신다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여일한 의도였다고 믿는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를 이성과 상식 그리고 성경의 이름으로 흠잡을 수 없다면, 어떻게 감

히 하나님의 의도를 흠잡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한두 가지 섭리의 행위는 분명히 작정되었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해서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 그 한두 가지의 섭리의 행위는 영원 속에서 행해진 것인지 아니면 시간 속에서 행해진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택함은 분명하게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 중 하나다. 택함 받은 이들은 적절한 때에 선택을 받지만 사실은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다.

하지만 당신은 “그 같은 확언이 양자 됴이나 칭의(稱義)에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 고인이고 저명하며 지금은 영화롭게 된 전임자, 길 박사(Dr. Gill)는 이러한 교리들을 성실하게 연구했는데, 양자됨은 영원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이며 모든 성도들이 영원 속에서 선택되었기에, 의심의 여지없이 이들 모두가 창세전에 양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칭의의 교리를 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아버지에 의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의 대표자로서 인정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는 모든 선택된 자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자, 처음에 그가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당한 항의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언급한 것이 상당 부분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러한 고차원적이고 신비한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는 당신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까지 영원 속에서 선택되었다는 교리를 받아들일 바란다. 양자됨에 관하여, 나는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됐다고 믿는다. 그런데 양자됨에 있어서 주께서 양자삼으시는 행위는 창세전에 완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는 몇 가지 점들이 있다. 예를 들면, 내 영혼이 자연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분명하게 옮겨진 것은 양자됨의 일부이거나 혹은 최소한 그 영향이다. 물론 그 옮겨짐은 그 자체로 양자됨의 한 부분이다. 나는 상태의 변화 사건은 계획된 것이고 실상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그 사건이 창세전에 실제로 충분히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칭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치른 순간, 그 때 내 모든 빛은 탕감되었고 그때 나를 온전히 의롭게 하셨으며, 그의 의가 내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레위가 그 허리에 있었던 것처럼 (히 7:5-10)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받아 들여졌다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믿는 순간 내게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롬 5:1). 따라서 나는 양자됨과 칭의는 영원성을 지니며 그때 실제로 정해졌다고 믿지만 그 둘 모두 시간의 영역 안에서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우리의 개인적인 상태와 인격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이에 영원한 그 두 가지의 작정은 시간의 영역 안에서 믿는 자들의 내면에서 이뤄지고 실행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이런 설명이 틀릴 수도 있다. 내 연수가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해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할 때 점차 그런 고차원적이고 신비스러운 복음 교리의 요지를 좀 더 깊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건전한 목회자들은 칭의와 양자됨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편 나는 성경을 통해 볼 때 칭의와 양자됨은 둘 다 창세전에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양자됨과 칭의의 ‘사건’은 적절한 인물, 양심, 그리고 시간에 따라 발생한다고 본다. 이로써 웨스트민스터 고백과 길 박사의 생각이 모두 성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그 두 관점을 편견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자,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제 예정설을 떠나서,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심”이란 교리에 대해 생각해 보자.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행위이다.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버림받아 몰락한 아담의 혈통에 속하여 있다. 하나님이 그들 중 누구를 양자 삼으심은 그들 안에 어떤 이유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다. 양자된 자들은 사탄의 악과 암흑의 계보에서 빠져나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아들들의 특권을 나눈다. 사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자손과 자녀들이 되었다.

이는 순전한 은혜의 섭리다. 어떤 사람도 양자 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만약 그랬다면 나는 그 유산을 내 자신의 권리로 받아냈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도 없고, 그렇게 고귀한 특권을 스스로 주장할 수 없기에, 양자됨은 그 자체로 순전하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언약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우리를 그의 자녀 되게 하시려는 크고 영광스러운 섭리야말로 모든 반박과 논쟁을 넘어서는 순전한 은혜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혈통에서 누군가를 택하셨더라도 그것은 주권적인 은혜의 행위였을 것이다. 그러나 양자 삼음의 경우, 하나님은 반역자 [아담]의 자녀를 입양하셨다. 우리는 본질상 반역죄를 저지른 자의 자식들이다. 우리는 모두 주께 반역한 자, 곧 창조주께 범죄한 자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를 알라. 하나님은 주인의 정원에서 과일을 훔친 도둑에게서 태어난, 감히 하나님을 반역하고도 자랑하는 반역자에게서 난, 악한 혈통에 속한 우리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보고 주께서 “내가 어떻게 너를 내 자녀들 가운데 둘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가장 낮고 천한 존재지만, 은혜가 우리를 구세주의 계보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알고 감사한다. 만약 어떤 왕이 그의 가문에 어떤 이를 입양한다면, 그는 영주의 아들과 같이 될 것이다. 훌륭한 가문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왕이 어떤 일반적인 흉악범이나 집시 아이를 그의 가문으로 인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가장 열악한 사람을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성도들 모두는 그가 그들을 택할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우리의 원래 혈통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께 추천받을 만한 것이 자신에게 많다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입양의 사례에서 몇 가지 권고사항이 있다. 어떤 사람이 아이를 입양할 때는, 종종 그 아이의 비범한 아름다움이라든지 혹은 지적인 태도나 우월한 기질에 주목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이 우리가 누워 있는 들판을 지나가실 때(에스겔 16:6), 주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넣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눈에서는 어떤 눈물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회개도 없을 것

이다. 또한 우리 안에 그가 우리를 양자 삼을 정도로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혐오스러운 존재 그 자체였다. 만일 그가 지나가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도발하여왔고 주의 위엄을 심각할 정도로 모욕하여 왔기 때문에 주께서 “너는 저주받았고, 영원히 사라져라”고 말할 것이라는 기대 외에 다른 것을 바랄 수 없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반항적이고, 불결하고, 무섭고, 험악한 아이를 발견하더니 그를 자신의 가슴에 품고 말씀하셨다. “너는 비록 검지만, 내 아들 예수를 통해 보니 내 눈에는 네가 어여쁘다. 너는 비록 의롭지 못하지만, 나는 네 형제인, 내 아들 예수의 예복과 그의 옷으로 감싸고 너를 받아들인다.” 비록 모두가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모습이지만, 그는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 그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셨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떤 나라의 재판장 앞에 사형선고를 받게 될 어떤 반역자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자. 공의와 법률은 가혹한 처벌로 그 가련한 자가 피 흘려야 할 것을 요구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그 재판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해 보라. “당신은 반역을 저질렀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반역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네. 이보게! 당신은 용서받았네!” 그의 뺨에 기쁨의 홍조가 보인다. “이보게! 당신은 부자가 되었어! 보라고, 이 부(富)를!” 그 얼굴에 또 다른 미소가 스쳐 지나간다. “이보게! 당신은 강해져서 모든 적을 이길 수 있게 되었네.” 그는 다시 기뻐한다. “이보게!,” 그 재판관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은 왕자가 되었네! 왕실에 입양되고 언젠가 왕관을 쓰게 될 걸세. 자네는 자네의 아버지의 아들이었듯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네.” 이때 당신은 그 가련한 자가 기뻐서 기절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목은 올라가기를 위해 준비되었다가 이제는 왕관을 쓸 준비를 한다. 흉악범의 옷을 입고 사형장에 끌려가리라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높임을 받고 예복을 입게 된다. 그러니 신자들이여! 생각해 보라.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부끄러움과 불명예 대신에 영광의 옷을 입게 되다니!

3. 양자 삼음의 요인들

출처: *A Complete Body of Doctrinal and Practical Divinity*, Vol. 2, (Tegg & Company, 1839), 93-102.

저자: 존 길(John Gill, 1697-1771) : 침례교 목사, 신학자, 성경 학자. 영국 노스앰프턴쇼 케터링에서 출생

역자: 스테반 황

양자 삼음의 효력 있는 요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을 수 없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없다. 오직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계 21:7)고 말하시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양자 삼으실 수 있다. 하나님, 즉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은 양자 삼는 일에 관련하신다.

1) 성부는 양자 삼음과 관련하신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만물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요일 3:1).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며 아버지이신 성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복 주셨다. 성부는 그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로 입양되도록 예정하셨고 양자 삼음의 은혜와 양자가 누릴 유업과 덕을 정하셨다(엡 1:11). 성부는 또한 그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다(롬 8:29). 성부는 그리스도를 택함 받은 자들의 양자됨의 본으로 삼으셨고, 그리스도는 그들의 본성을 취하심으로써 그들이 신성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또한 그리스도가 그 아들이며 만물의 상속자인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은 그들이 그리스도처럼 자녀가 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부께서는 그들의 양자됨 및 그와 관련한 모든 것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 안에서 그들을 위해 이 복을 베푸시고 보장하셨다. 이 복은 하나님이 정하고 보장하신 모든 복 중 하나다. 양자됨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에서 부으신 영적인 복 중 하나다. 이 언약은 이와 같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고후 6:17-18). 그렇다. 양자 삼음 또는 자녀 삼음은 하나님의 행위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렘 3:19).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악하고 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

2) 하나님의 아들은 양자 삼음과 관련하신다. 그는 주의 백성의 양자됨과 여러 면에서 연결되어 있고 관계가 있다. 그와 주의 백성 사이에는 매우 친밀하고 신비한 연합이 있다(요 17:21). 이 연합으로 인해 은혜의 모든 복이 성도들에게 흘러간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평안함과 행복을 받는다. 특히 그리스도와 그들은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의 아버지는 그들의 아버지시다. 그리스도는 아들이고 그들은 자녀들이다. 그리스도는 상속자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롬 8:17). 그리스도와 주의 백성은 결혼 관계에 있다. 그리스도는 의를 통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은 영원하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남편이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배우자요 신부다. 한 남자가 왕의

딸과 결혼하면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듯 사위가 된다. 마찬가지로 왕의 아들과 결혼하는 여자는 왕의 딸이 된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왕의 딸이 된다(시 45:13).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해 고엘(기업 무를 자)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몸과 피를 지닌 자들의 형제가 되셨다. 그리스도와 그들은 동일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스도는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히 2:11).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양자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과 언약 가운데 그들을 위해 미리 준비되었던 복이다. 그렇다. 그리스도는 양자의 복을 실제로 부여하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그들을 자녀 삼으심으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아들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요 8:36). 이제 자녀가 된 자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들이다.

3) 성령께서도 양자 삼음과 연관되어 있다. 그는 중생의 주체시다. 중생은 양자됨과 다른 것이지만 양자됨의 증거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요 1:13).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이러한 영적인 출생은 성령의 사역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여기서 성령의 은혜가 물과 비교되고 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은 양자가 된다. 따라서 신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갈 3:26)이 된 자들이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믿음은 양자의 특권과 복을 받으며 요구한다. 더욱이 양자된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그는 신자의 영과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신다(롬 8:15-16). 그들은 성령을 양자의 영으로 받고 성령은 그 목적을 위해 그들의 마음에 임하신다. 이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기 때문이다”(갈 4:6). 이후로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을 인도하고 가르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하여주신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심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속에 주신 바 되어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여 주신 그들이 받게 될 유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엡 1:14).

양자 삼음을 야기한 요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거저 베푸시는 은총과 선하신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요인을 피조물 가운데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양자된 자들의 따스한 성품이나 온유함이나 행동과 습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요인에 대해 사도는 감격 가운데 말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요일 3:1). 사도는 우리의 양자됨의 요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알려준다!

그렇다면 양자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이다. 양자 삼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처럼 하나님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맘껏 사

량하는 자녀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예정된 자들이다(엡 1:5). 그러므로 그들은 부름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자녀들이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흠어진 자들이었지만(계 5:9) 그리스도께서 구속함으로 함께 모으셨다(요 11:52). 그들은 이미 그들을 위해 정해진 대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반항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고,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난다. 그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과 권세와 특권과 엄위와 영광을 누릴 수 없다.

4.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출처: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 1955, Wm. B. Eerdmans Company, Grand Rapids, MI

저자: 존 머리 (1898-1975) : 장로교 신학자이자 저자로, 영국 스코틀랜드의 서더랜드 주 보나 브릿지 인근 바다 출생.

역자: 김현준

양자됨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는 은혜의 여러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뿐더러 그것들에 더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 이 용어 자체에, 또 이 용어의 뜻에 이미 독특함이 묻어나 있지 않은가? 하지만 양자됨이 나름의 특권을 갖고 있는 특별한 행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히 양자됨은 칭의나 거듭남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양자됨을 칭의의 한 측면이나 거듭남을 통해 누리는 특권 정도로 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양자됨은 이 두 가지 은혜보다 더 크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용납하셔서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신 것을 말한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런 축복들이 귀하지만, 양자됨을 통해 받는 축복은 아니다. 구속(救贖)된 자들은 양자됨을 통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이에 따른 특권을 누리게 된다. 칭의나 거듭남으로는 이 사실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다. 양자됨의 특징을 말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나 권세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과 권세다.

하지만 양자됨과 은혜의 다른 행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1) 양자됨은 구별되지만 칭의와 거듭남과 분리될 수는 없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자녀로 받아들여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2) 칭의처럼 양자됨 역시 법정적인 행위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신분이나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나 성품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관계와 상관 있는 것이지, 그 관계를 인식하거나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나 성향은 아니다.

3)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사람들에게는 양자의 영이 주어지고, 이로써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특권도 누릴 수 있게 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6, 참조, 롬 8:15-16). 양자의 영은 양자됨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 영이 양자됨을 성립시키는 것은 아니다.

4) 양자됨과 거듭남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서로 밀접한지, 혹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신적 본성에 참여하는 것과 입양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를 통해서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추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성경에 있다. 한 인간이 가족 구성원이 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그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가정으로 입양되는 것이다. 전자는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고, 후자는 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준다. 거듭남과 양자됨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견해가 결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좌우지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창조적인 역사(거듭남)와 양자됨 간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녀로 입양하실 때 그들에게 자녀의 자격과 권한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위에 걸맞은 성품과 성향도 주신다. 이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된 사람치고 그 가정에 부합하는 분위기와 영과 신분에 이질적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거듭남은 양자됨에 따르는 필수 조건이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으로서, 양자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 하지만 양자됨은 단지 거듭남만 뜻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양자의 영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는 전제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 따른 결과다.

용어가 분명히 암시하고 있듯이, 양자됨은 외인으로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는 확실히 최고의 은혜와 특권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계시와 확신이 없이는 이런 은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요구도 할 수 없다. 이 은혜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경비하심과 사랑은 상상을 초월한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에 이 사실을 인(印)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전 2:9-10). 성경의 계시와 함께 오직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증거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정점에 이르러 효성스러운 확신과 사랑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할 때 꼭 구별할 게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전적으로 삼위일체적이라는 것이다. 삼위 가운데 제 1위이신 성부 하나님은 제 2위이신 성자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의 의미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이런 영원하고 필연적인 관계를 성자와 가지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유일하고 배타적인 관계다. 누구도, 심지어 성령도 이런 의미에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처럼 될 수 없다. 당연히 이런 관계를 천사나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현대신학에서 종종 하는 말은 사람들이 양자됨을 통해 그리스도와 성부와 관계를 공유하게 되고, 그 결과로 삼위일체의 신적 생명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심각한 혼동과 오류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은 독생자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과 같은 관계를 공유하지 못한다. 이는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독생하신 아들과 갖는 관계를 누구와도 함께 나눌 수 없는 것과 같다.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때때로 하나님을 보편적인 아버지로 부른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

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생명이 기동하고 존재한다. 이런 관계에 대한 언급은 사도행전 17:25-29, 히브리서 12:9, 야고보서 1:18에도 나온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또 하나님은 모든 영혼과 빛들의 아버지이시므로(약 1:17),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로 모든 인간을 유지하시는 이런 관계를 보편적인 아버지로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관계를 더욱 분명히 나타내는 다른 성경 구절들이 있다.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구절들 가운데 일부는 이런 보편적 부성이 아닌 더 특수하고 제한적인 의미로 부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는 말라기 2장 10절의 물음이 그렇다. 이 구절이 최초의 창조와 관련해서 모든 인간의 아버지 되심을 암시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아무튼 성경에서 창조와 일반 섭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인간들의 아버지로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에게 아버지라는 말을 적용하거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적용할 때는 모두 한결같이 구속과 양자됨을 통해 이루어진 특별한 관계를 언급할 때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롬 8:15)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마 6:9)와 같은 구절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언급하는 중대한 메시지들은 보편적인 아버지 되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과 맺어진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구속과 양자됨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편적인 아버지 되심으로 바꿔버리는 것은 복음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속과 양자됨을 통해 이루어진 가장 고상하고 부요한 관계를 창조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맺게 된 관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복음에서 구속의 의미를 제거하는 것이다. 또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가정으로 입양되기에 충분하다는 망상을 심어준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진리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신자의 자녀 됨도 구속이 적용되어 나타난 결과 중 하나다. 유효한 부르심과 거듭남과 칭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양자 삼으심을 통해 자기 백성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힌 사도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요일 3:1)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 양자됨이 사람들 사이에 만든 간극을 가리켜 요한은 계속해서 말한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또 자녀가 된 실체에 대해 어떤 의심도 갖지 않게 하고자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3:2)라고 주장한다. 요한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잘 이해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요 14:21, 23). 첫 번째 서신을 쓰는 요한의 마음은 이렇게 놀랍게 부여지는 성부의 사랑으로 흘러넘치고 있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요일 3:1). 이것은 성부께서 하신 특별한 은혜의 행위다. 요한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시도

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이로움은 영원히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5. 양자됨에 나타난 은혜

출처: *The Works of Abraham Booth*, Vol. 1 (London: J. Haddon, 1813), 196-207.

저자: 아브라함 부쓰(1734-1806) : 영국 침례교 목사

역자: 아브라함 장

우리가 다루는 신령하고 영적인 양자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자녀들의 지위와 관계 속으로, 그리고 자녀들로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고후 6:18)는 새 언약의 영광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화해와 칭의, 양자됨 사이의 구분이 가능해진다. 화해에서는 하나님이 피해자이고, 죄인은 그분 앞에서 원수로 간주된다. 칭의에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최고 재판장으로서의 속성을 유지하고 계시며, 인간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선 죄인으로 여겨진다. 양자됨에서 여호와와 명예와 특권의 원천이시며, 배교한 아담의 후손들은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진 이방인, 즉 사탄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 진노의 자식들로 낙인찍힌 상태에 있다. 화해를 통해 우리는 친구로 변화 되었고, 칭의를 통해 의롭다고 선언 되었으며, 양자됨을 통해 영원한 유산의 상속자가 된다.

성경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믿는 자들은 위로부터 태어나기에,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와 혼인한 관계에 있기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는 자들의 자식 된 관계를 여러 가지 면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축복에 관해 생각해보려고 할 때 느끼는 우리의 허약한 이해를 돕고자 의도된 것이다. 즉, 여러 가지의 관계 표현을 통해 각 관계에서 미흡한 개념들을 보완하게 된다. 영적 생명의 근원과 신적 형상의 회복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칭함 받는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과 우리 사이의 가장 밀접한 연합을 가장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혼인한 자들이라 불린다. 아울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의 본래 상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우리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에 의해 양자로 입양된 자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이 가진 조건은 가장 고상하고 탁월한 것이다. 하늘로부터 난 그들의 출생, 그들의 신적인 남편, 게다가 그들의 영원한 유산이 신자들의 특권을 소리 높여 선포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도는 양자됨의 특권 속에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나머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요일 3:1)라는 놀라움과 기쁨의 탄성을 자아낸다. 여기에서 은혜가 통치한다. 궁핍의 그릇들은 이런 영광과 행복을 누리도록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위대하신 만유의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그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요,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것이다. 이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엡 1:5-6)는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다. “그 기쁜신 뜻대로”란 신령한 축복의 영원한 근원을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란 그것이 죄인들에게 전달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그것을 주시는 목적을 말한다.

양자로 입양된 자들은 아담의 후손인 죄인들이며 본질상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 앞에 유죄가 인정된 자들로서 사망 선고를 받아 멸망 받을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이 것처럼 비참한 상태에서 참으로 영광스런 상태와 관계로 옮겨진 것은 통치적 은혜의 일례다. 진노의 자녀들이 영광의 상속자가 되며 사탄의 노예들이 여호와와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것, 또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되어 그분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에 대한 파기할 수 없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의 본성과 원래 상태는 가장 누추하고 비참하며 혐오스러워, 죽은 후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지옥의 악령들과 저주받은 마귀들과 함께 사는 어둠과 절망의 처소 밖에 없다. 그러나 양자됨의 특권을 덧입어 우리는 빛에 거하는 성자들과 영광중의 천사들과 함께할 수 있는 특성을 부여 받고 그런 상태로 옮겨진 것이다. 무한한 능력의 통치적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처럼 고귀하고 놀라운, 그리고 신령한 변화를 가능케 하겠는가?

성자들이 양자됨을 통하여 소유하게 되고, 상속하게 된 것처럼 귀중한 이 특권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얼핏 들여다보기만 해도 그 최상의 축복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좀 더 뚜렷해질 것이다. 그 특권들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들은 단순히 종이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칭함을 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품위 있는 특성은 불변한다. 주님께서 친히 그것은 “영원한 이름이며,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사 56:5)이라고 단언하신다. 다윗이 이 땅의 임금의 사위가 되는 것을 것처럼 대단하게 여겼던 것을 보면(삼상 18:23), 믿는 자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고귀한 호칭을 얼마나 더 존귀하게 여겨야만 하겠는가?

또 그들은 왕들과 제사장들이라 불리지만, 이처럼 위엄과 덕망이 깃든 호칭 외에도 신성한 글을 읽는 지혜로운 독자들이라면 누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더 다양한 특성들에 의해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 그들이 맺은 관계의 존귀함은 엄청나게 위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자기의 형제로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단순히 형제들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신부가 된다. 그분은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시며”, “그 전체가 사랑스런” 분이시기에(아 5:10, 16) 그 어떤 것도 그들이 그분과 혼인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다거나 유익하다고 생각될 수 없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 지각 있는 과부는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삼상 25:41)라고 하였다. 자, 이제 믿는 자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저열한 노예상태의 굴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다윗이 예표하는 바로 그 하늘의 신랑과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연합 및 혼인 언약을 맺게 한 그 자비로운 손길을 향하여 감사와 경이의 경배를 바쳐야 할 이유가 무한토록 더 크지 않겠는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지속적인 돌봄의 대상이 된

다. 그분은 아버지로서 그의 훈계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들이 불순종 할 때 그분은 징계의 회초리로 찾아가시고,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분은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오신다. 그들을 다루시는 모든 모습들 속에서 그분은 그의 사랑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신다(롬 8:28). 그렇다. 그들은 섭리 안에서 사랑 받는 자들이며, 천사들의 보호 아래에 있다. 불꽃처럼 활동하며 번개보다 기민하게 섬기는 영들이 그들 주변에 진을 치고 있으며, 그들에게 최고의 유익을 안겨주기 위한 은혜의 설계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간다.

양자됨을 통해 그들이 상속권을 갖게 된 유산, 즉 깨어질 수 없는 새언약을 통해 그들 앞으로 남겨진 영원한 유산의 부요함과 탁월성은 그 어느 것도 능가할 수 없는 것이다. 거룩한 말씀에 기록된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입증되었다. 그들의 유산에는 현세에서의 온갖 은혜의 축복들과 내세에서의 온전한 영광의 결실이 포함된다.

때때로 그들은 세속적인 것들과 관련해 궁핍을 경험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겠으나, 일반섭리의 축복은 아버지의 지혜안에서 그들의 영적인 안녕과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공급된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으며”(딤후 4:8),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분의 섭리적 은총이 그들에게 필요할 줄을 아신다(마 6:32). 따라서 세속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영원한 것이든, 또 현재에 있는 것이든, 미래에 속한 것이든, 모두가 그들의 것이다. 감탄할 만한 구절에 따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고전 3:21-22). 그러나 성령은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선언한다(롬 8:17). 그러므로 각자는 “여호와 그분은 나의 상급,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이시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 그렇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서로를 소유하기에 그 기업 역시 그들 간에 공유된다. “야곱의 분깃은…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렘 10:16). 하나님의 기이하고, 사랑스러우며, 경배할 만한 모든 속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영광스럽게 표출된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영원한 영광이요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누릴 것이다! 사람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또는 자기 아들을(롬 8:32),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좋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그들의 숭고한 관계에 대한 증거와 그들이 장차 받을 유업에 대한 보증으로서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게 되며, 이로써 그들은 적절하면서도 떳떳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롬 8:15). 종의 영광은 반대로 양자의 영은 빛과 자유의 영이요, 위로와 기쁨의 영이시다. 그분은 믿는 자의 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여하게 하신다. 그분은 신자의 기억에 그 약속들이 떠오르게 하시며, 그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그 약속들을 간청할 수 있게 도우신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고양시키시며, 구속의 그 날까지 그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인(印)치신다. 이 모두가 은혜가 통치하는 은혜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들이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놀라 당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얼마나 큰 은총으로 여겨야 할지! 영원하신 왕으로부터 가장 정중한 배려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그분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져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분의 성품을 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하지만 모든 은총의 원천이신 그분의 입양된 자녀들이 된다는 것,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분과 혼인한 신부가 된다는 것,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 천사들의 경배의 대상이신 그분을 우리의 남편으로 섬긴다는 것, 진정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넘치는 영적 축복인지!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자매라”(욘 17:14) 말하는 것이 마땅한 죄악된 인간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의 분깃, 당신이 가진 모든 것과 당신의 모든 존재는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를 완벽하게 행복하고 영원히 축복받는 존재가 되게 해 달라”고 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도 유쾌한, 황홀한 것인지! 이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위대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축복이다.

이 땅의 귀족들과 권력자의 자제들에게 그들의 고귀한 출생과 큰 재산, 화려한 호칭과 거창한 시중 행렬, 우아한 식탁과 값비싼 전시물 등을 자랑케 하라.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가난한 농부가 그 모든 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낫다. 그들이 자수로 장식한 비단 옷을 입어 고운 빛을 발산하거나 금은보화를 걸쳐 눈부시게 반짝인들 어떠하리. 큰 세상 재물이 그들의 무릎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들의 이름이 인간이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수식어로 꾸며진다 한들, 머지않아 그들은 가장 천한 인간들과 함께 “흙 속에 누워야”(욘 21:26)만 한다. “그들 위에 구더기가 [신속히] 덮이고”(욘 21:26), 그들에 대한 기억도 부패하여 사라진다. 그러나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의 새 이름은 영원하다. 인간들 틈바구니 속에서 아무리 무시와 멸시를 당할지라도, 그 이름은 생명책에 당당하게 영원히 남으리.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걸출한 인사로 명성을 날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갈채를 받기는커녕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늘에서의 당신에 대한 평가는 높다. 가장 고상한 영광에 있어서 당신은 부족하지 않다. 당신의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당신의 가는 길을 아시며 천사들을 명하여 그들의 존중의 대상으로 당신을 대우하라 명하신다. 명문가 선조들이나 귀족의 혈통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당신은 위로부터 태어났으니 당신의 혈관에는 하늘나라의 고귀한 왕족의 피가 흐른다. 세속적 군주의 총애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왕자로서의 권능을 가진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것처럼 가난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전부 당신의 것이다. 당신 주변에 열을 지어 시중드는 시종들이 없고 거미줄이 쳐진 작은 오두막에서 거처한다 해도, 당신의 안위를 위해 지금도 애쓰는 거룩한 천사들은 당신의 경호원이며 신하들이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몸소 낮아지시는 것은 당신의 낮은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려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다. 당신에게는 흠모할만한 특질이 있고, 당신은 행복한 상태에 있다. 이것은 인도제국의 모든 재물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다. 이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세상의 모든 임금들도 줄 수 없는 영광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영광의 교만함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으나 이 영광은 결코 흙 속에 덮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세속적인 모든 탁월

함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스스로 인정해야만 할 때 그 위에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고상한 행복에는 변함도 없으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음을 되새기는 일은 얼마나 고무적인가! 기독교 신앙이여! 인간의 마음을 고상하게 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위대하게 하는 것은 그대의 몫이다. 은혜여! 가난한 이들을 더러운 곳에서 일으키며, 궁핍한 이들을 흙 속에서 구해내는 것은 그대의 몫이다. 그들을 하늘나라의 왕자로 삼아 영광의 보좌에 앉히는 것은 그대의 몫이다.

~~~~~

양자됨을 통하여, 하나님은 외인이요 나그네인 우리를(한때 사탄의 종 혹은 노예였었던) 옛 아담의 가족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옮기셔서 당신의 가족으로, 빛의 왕국으로 받아들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아들의 위엄을 주신다. 그분은 끔찍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은 차별성과 영예도 함께 주신다. 심지어 그분에게 속한 모든 은혜와 영광의 좋은 것들을 차지할 권리까지 주신다. 유업의 이름으로 부여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아버지의 은혜로 주어진다. - 프란시스 튜레틴

## 6. 양자됨의 본질과 유익

출처: Great Doctrines of the Bible by Martyn Lloyd-Jones, © 2003 by Bethan Lloyd-Jones, 179-189.

저자: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존스(1899-1981) : 웨일스의 강해 설교자이며 저자

역자: 김현준

양자 됨이라는 말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살펴봄으로써 이 교리를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로마서 9장 4절을 보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사도는 이 구절에서 자신의 혈육을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육신으로는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이다. 필자는 로마서 8장 15절을 두고 왜 이 구절부터 특별히 살펴보려는지 나중에 그 이유를 알려주겠다. 사도는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같은 장 23절에서 바울은 장차 올 시대를 언급하면서 다시 한 번 이 특정한 단어를 말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4-5절에서도 이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 바울은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다. 다른 구절도 있다. 에베소서 1장 15절이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듯 성경에 이 단어가 계속 나오므로 양자됨이란 단어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느 때 이 단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 이번 주제도 마찬가지로 정의부터 살펴보자. 아마도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단어의 어원학적인 관점부터, 즉 이 단어의 근본 의미부터 살펴보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자식을 들여놓는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고대 언어도 현시대와 같은 개념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 즉, 이 단어는 한 가정에서 다른 가정으로 옮겨지는 것, 곧 새로운 두 번째 가족으로 들어가 아들이나 딸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이 이 단어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라면 우리는 곧바로 이 아들이라는 말, 즉 특별히 성경에서 취급된 이 단어의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자. 독자가 성경 전체를 살펴본다면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다음의 방식으로 취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단어가 단수로 쓰이면 예외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아들(the Son)이기 때문이다. 때때로 예수님은 정관사 없이 그냥 아들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나타내신다.

또 이 단어는 천사를 복수로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다. 이 단어가 천사들에게 적용된 본문들을 모아놓고 살펴보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피조물임을 알게 된다. 이들은 지성이나 다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닮은 면이 있다. 이 단어가 천사들에게 적용된 본문은 욥기 1장과 6장이다.

셋째, 시편 82편 6절에서 아들이 복수 형태로 적용된 예는 매우 흥미롭다. 이 본문에서 아

들의 복수 형태는 사법권을 지닌 인간에게 적용되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술이다. 왜냐하면, 독자는 요한복음 10장 34절을 곧바로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자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반대한다. 이때 주께서는 친히 이 단어를 말씀하셨다. 분명한 것은, 이때 하신 말씀의 의미는 사법권을 지닌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었다. 즉,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능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 단어의 네 번째 용법은 하나님께서 입양하실 대상자들에게 적용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 입양과 특별 입양을 구분해야 한다. 바울은 로마서 9장 4절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언급한다. 바울은 9장 2-4절에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한다. 그 이유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도 볼 수 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끄시고 그들을 “내 아들”처럼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양자됨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적용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실 때도 이스라엘에 대해 “내가 땅의 모든 족속(나라들)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암 3:2)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모든 나라를 아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 특별한 관심을 두셨다. 하나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었다. 하지만 이 단어의 특별 용법은 영적이다.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두는 부분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방식을 통해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의 자녀들 간에는 예리한 구분이 있다. 요한은 첫 번째 서신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요일 5:19)라고 구분했다. 이런 구분이 성경 도처에서 발견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아버지 되심과 사람들의 보편적인 형제애 개념을 거부해야 한다.

두 번째 요점은 우리 주님의 아들 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냐는 물음이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되신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신인(神人)이시다. 즉,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하신 하나님-완전하신 사람이다. 우리는 신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구별을 강조하시는 데 큰 주의를 기울이셨다. 한 예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신 것을 보자.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마 6:9)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주님 자신을 포함하지 않으셨다. 그 모범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님은 그 ‘우리’에 포함되지 않으시다. 주님은 특별한 그 모범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 특별한 언급을 하셨다. 주님은 여자들 가운데 한 명

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 20:17)고 말씀하셨다. 왜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구분하셨을까? 이유는 분명하다. 주님은 이 구분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쓰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내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다. 주님은 독생자시다.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구분이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양자됨에 대한 정의를 더 정확히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자됨을 하나님의 법정적인 행위로 묘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양자 삼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자녀라는 신분 또는 지위를 주신다. 바로 이것이 진짜 의미다. 여기서 나는 양자됨은 구속을 적용하는 성령의 두드러지고 특별한 역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양자됨을 다른 모든 은혜의 행위와 구별하되 분리해서는 안 된다. 양자됨은 특별한 단계이긴 하지만, 그 단계를 완전히 분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의미로는 종생과 믿음과 칭의 등이 모두 한꺼번에 발생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양자됨의 위대한 역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생각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양자됨은 칭의와 같은 것이 아니다. 심지어 칭의의 일부분도 아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구별된다. 칭의의 단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주신다. 그것은 선포적이고 법정적인(재판에서와 같은) 행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해주신 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선언하시는 행위다. 마찬가지로 칭의가 양자됨은 아니다. 또한 우리는 양자됨과 거듭남도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종생의 단계에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받는다. 그리고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지만 이것이 양자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양자됨은 칭의와 거듭남이 결합된 결과다. 이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양자됨은 칭의나 거듭남보다 더 크다. 즉, 양자됨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이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그들은 의롭게 되었고 율법과 율법의 정죄에서 이제 막 자유롭게 되었고 긍정적인 면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선포를 듣는다. 정말 그렇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덧붙여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포도 듣는다. 어떤 면에서는 양자됨은 또 다른 법적인 행위이자 선포다. 하지만 이 선포는 뭔가 새롭고 뭔가 다르다. 즉, 양자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된다.

그렇다면 좀 더 중요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살펴보자. 우리 중 아무라도 양자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독자는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갈 3:26). 또 베드로전서 1장 3-6절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 유업이 마련되었다. 우리는 상속자들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양자됨을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양자의 영을 통해서다. 이 영을 통해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갈 4:5). 독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증거는 이미 앞에서 다루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증거해준다. 우리의 영이 성령께서 증거해주시는 것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더 절대적인 증거는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것은 바울이 강조한 내용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 바울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나 “원수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럴지 않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다 -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증거들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자됨의 결과를 살펴보자. 첫째, 양자의 영을 받았다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롬 8:15)은 사라진 것이다. 둘째,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는 자유의 영을 받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제 율법과 율법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다. 또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린다. 셋째,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된 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리고 싶다.

하지만 이에 추가될 다른 결과들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입양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레 26:12).

그 밖에 또 있는가? 다섯 번째 유익은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제공하시는 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눅 12:7).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한다. 자녀들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생각해보라. 이 약속들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사실로 입증된다. - 보호, 위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벽히 채워주시는 일 등.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 13:5). -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다음으로 살펴볼 유익은 그리 달가운 내용은 아니다. 아버지로서 징계하시는 일이다. 징계에 대해 다루는 내용이 히브리서 12장의 첫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히 12:6). 이 말씀이 강조하는 내용은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들이 아니며 사생아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니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히12:11). 이 말씀은 양자 된 결과를 매우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도록 작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징계의 과정을 겪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 요점은 양자됨의 확실성과 안전성이다. 그렇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당신은 “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되었다(벧전 1:4). 그러므로 안전하다. 바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로마서 8장 38-39절에서 언급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입양하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의 운명은 안전하고 확실하다. 그것은 보장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들이셨다면 나는 그분의 자녀요, 상속자이며, 아무것도, 그 누구도 나를 이 상속자의 신분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 7. 사탄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출처: *Lectures on Theology*, 2nd ed., Vol. 3, 1838 (Reprint, Stoke-on-Trent: Tentmaker Publications, 2004), 406-412.

저자: 존 디크 (John Dick) (1764-1833): 스코틀랜드 목사 겸 신학자, 영국 스코틀랜드 애버딘 출생.

역자: 김혜원

‘양자됨’이란, 성경적 뜻에 따르면 하나님이 죄악 된 인간을 그분의 자녀로 선포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가정으로 받아들이시며, 그분의 자녀 됨의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이런 일반적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에 주목하기를 요청한다.

첫째로, 입양된 아들은 원래 다른 가정에 속해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가정으로부터 왔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아담의 가족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아담의 후손(혈통적으로 아들들과 딸들)으로 태어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형상과 그를 닮아 태어났고 그에게서 파생된 죄책감, 오염, 그리고 저주라는 치명적 유산으로 물려받았음을 뜻한다. 우리는 고대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재 목적에 맞게 수용할 수 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사 51:1). 당신을 죄로 잉태하여 죄악 가운데 낳은 당신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보라.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하여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데 모든 타락한 상태의 사람은 아담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꾀에 속아 현재의 그들 상태로 떨어진 마귀의 자녀라고 선언한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요 8:44)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너희의 관계를 자랑하며 그 사실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소망하지만 그러나 너희 행동은 너희가 모든 의의 원수인 마귀의 자녀임을 입증한다고 하셨다. 이에 주님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덧붙이셨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선언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뚜렷하게 드러난 부패 때문에 그들에게만 적용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중생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그 부류에 속한다고 주의 깊게 알려준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요일 3:8, 10). 악명 높은 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를 반대하는 마음은 드물 것이다. 그들의 신성모독, 불경스러움, 악의, 질투, 폭력, 잔인함 속에서 우리는 확실히 어둠의 영의 지독한 특성을 인식한다. 그러나 자만, 자신감, 신성한 성품과 율법에 대한 반감, 우리의 창조주의 뜻을 향한 혐오, 그리고 모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죄의 성향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반역했던 첫 반역자의 권고를 따르고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징후들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엡 2:2). 그러므로 모든 불순종의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들인 것이다. 비록 그들이 그들의 관계를 부인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불경스러운 생각과 행동을 보며 그 사실을 날마다 인식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개입되지 않는 한 그들의 할당된 몫인 진노의 유산을 받을 것이다.

둘째로, 새 가정의 한 구성원이 된 양자로서 이런 영적 특권을 부여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등록이 된다. 마치 먼 나라로 떠나 그의 물질을 방탕한 삶에 낭비하고 극도의 괴로움에 빠진 탕자와 같이, 그는 그의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온다. 그 비유 속의 언어를 인용하면, 그의 아버지는 그를 다정하게 포옹하며 사랑의 팔로 안는다. 이때 아버지는 그를 종의 상태에 두지 않고 아들의 이름과 권리를 되찾게 한다. 우리가 다시 속하게 된 이 가족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위엄과 영광 가운데 첫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분은 신성한 위격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그분의 중보적 신분에 있어서 신자들과 특별한 관계에서 계신다. 성경은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롬 8:29)이라 부르는데, 이는 그가 천국의 권속에 속하여 있고 또한 그 권속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뛰어난 자리에 있음을 암시하여준다. 예수님은 맏형이다. 이는 예수님과 다른 자녀들, 혹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 공통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히 2:11-12)고 하신 것이다.

다음은 순결함과 충실함을 지켜온 상태에서 이제 그들의 최초의 상태의 영광과 환희를 끊임없이 즐기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다. 우리가 앞서 언급하였듯,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가족의 결출한 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들의 기질의 뛰어남과 자질의 우수함과 사랑의 열정 그리고 불굴의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낸다. 우리는 양자됨과 함께 그들과 하나가 된다. 즉, 하늘의 거민들과 땅 위의 성도들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아래 하나의 거룩한 사회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공간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전투에 임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있다. 비록 그중 일부는 장성한 상태에 있고 다른 일부는 갓난아기의 상태에 있지만 모두 같은 고상한 신분을 부여받았으며 하나님과의 동일한 관계에서 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선지자들과 사도들, 순교자들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모든 시대와 나라의 신자들은 하나의 큰 형제애로 결부되어 있다. 우리는 주권적 은혜에 이끌려 우리가 속한 부패하고 폐허가 된 가정에서 우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들과의 모임을 접하게 되었다. 즉,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보좌 앞에서 사역하는 밝은 영들과 하나님의 손으로 주의 완전한 형상을 새겨놓은 행복한 사람들과의 모임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히 12:22-24). 양자됨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그 자체를 생각하든, 그 결과를 생각하든 얼마나 놀라운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요일 3:1).

세상에서의 입양처럼, 영적 입양 역시 그가 태어난 가족에게서 낯선 가족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세상에서의 입양의 경우, 자기 자녀가 없는 어떤 사람이 입양을 원하면 입양 제도에 의해 그 갈망이 채워진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을 하늘의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로서 입양 받는 우리는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의 역사다. 그분의 은혜로 이 높은 영예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분의 권능으

로 그들의 본래의 관계를 끝내고 그분과 그들 사이의 새 관계를 형성하는 역사다. 출생, 외적 특권, 육체 및 정신적 업적, 그리고 다른 이들의 추천으로는 우리를 이러한 영광스런 지위로 들어 올릴 수 없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 1:13). 우리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호의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 동일한 구절은 우리에게 자녀 됨의 특권과 그것에 딸린 모든 축복을 부여한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호 1:10).

우리가 앞서 인용한 말씀에서 배운 바와 같이, 양자됨의 공로적인 요인은 그리스도의 중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 4:5). 예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그것을 부패의 상태에서 일으켜 세우셨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여 영광을 잃었고 창조주와 교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였다. 그런데 우리 구주의 위격 안에서 인간 본성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합당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주의 사랑의 대상으로 구별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다 아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시고 우리가 잃은 아들의 신분을 다시 되돌려 받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무한하게 귀한 복종을 통해 우리를 위해 구원의 모든 축복을 얻어주셨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13, 19). 믿는 자들에게 전가된 주님의 의는 그들에게 그분의 죽음으로 인한 결실을 누릴 자격을 준다. 성령에 의해 형성된 주님과 의 연합은 그들을 하나님과 그분 자신과의 동일한 관계에 놓이게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요 20:17).

마지막으로 내가 언급할 것은 우리가 양자됨의 특권을 실제로 어떻게 갖게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세상에서의 입양은 입양될 사람의 동의가 요구되었고 공개적으로 표명됐다. 영적 양자됨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그 특권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양자가 될 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으나, 그럼에도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며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 동의는 믿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선물을 주신 복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에서 동등한 말로 사용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신다. 믿고자 하는 죄인이 대답한다.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나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분의 애정과 돌봄의 대상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상속 받을 자들이다.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

컬음이 될 것이라”(사 62:2).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라. 그리스도는 택한 자들의 본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택함을 받았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래 아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들이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29).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원형과 완성물로 세우셨다는 뜻이며 우리는 그분을 닮은 작은 모형들로 지으셨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영예와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 외에는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그는 우리가 양자가 되도록 하시는 실제 요인이시다. - 아더 핑크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고 지금은 그분의 영을 보내신다. 그리스도는 보냄을 받았고, 성령은 보내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때문에 성령께서 내재하시게 된 사실을 알게 된다. 빛과 생명과 사랑과 자유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으로써 지금 당신 안에 있다. 예수께서 물 세례를 받을 때 그에게 임하였던 동일한 성령이 당신에게도 임하였다. 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현재 당신의 인도자와 위로자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분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당신의 생명이며 그리스도의 영은 당신의 성령이시다. - 스펀전

8. 증인으로서 성령

출처: *The Inquirer Directed to the Work of the Holy Spirit* (Philadelphia: Linday & Blakiston, 1856), 190-220.

저자: 옥타비우스 윈슬로우(1808-1878) : 침례교 목회자. 저술가, 후기에는 영국 성공회 신부, 영국 펜튼빌 출생.

역자: 염지웅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만 한정한다면, 우리는 그의 사역에 대한 제한적인 관점만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증인이시다. 이것은 그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명백해진다 :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요일 5:10).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요일 4:13).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고후 1:22). 그러나 이 진리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언급은 이 말씀이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요일 4:13). 이 주제에 관해서 간략한 개요를 말하겠다.

죄의 용서에 관한 확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됨의 교리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이 생애에서는 결코 기대하기 어려운 성취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것이 표현되면, 이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뿐만 아니라, 소망의 완전한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았고 죽었던 수많은 분의 실제적인 경험에 반한다. 확신의 교리는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의 교리로 암시되어 있고 표현 되어 있다. 이 확신이 성도의 구원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마음의 상태로 강요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평안하고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하여 필수적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견고하게 이를 지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교리에 대한 명확한 언급들이 왜 있는 것일까?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되고,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을 위한 “위대한 투쟁”을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히 6:11)이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한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그의 독자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진심으로 권면한다. 이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성경 말씀을 인용할 필요는 없다. 로마서 8장 16절은 명쾌하게 그 교리를 기록하고 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

첫째, “성령이 친히 증언하시나니” 비참한 죄인에게 그가 하늘의 대법정에서 죄를 용서받고 왕의 가문에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은 낮은 지위의 대리인에게 맡겨질 수 없다. 어떤 천사도 이러한 소식을 감당할 수 없으며, 어떤 유한한 사람도 이 비밀을 열 수 없다. 성령 하나님 그분만이 가능하다!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 이 증언에 미치지 못한 자는 자신의 영혼에 잘못을 하는 것이다. 당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분 이외에 다른

것을 전혀 의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증언으로는 어렵었다. 당신의 목사, 당신의 친구들이 경험적인 여러 가지 증거를 말해 줄 수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줄 수는 없다.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다. 그만이 가능하시다. 그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다(고전 2:10). 그만이 자신의 사역과 가짜 사역, 은혜와 은혜가 아닌 것을 바르게 분별하실 수 있다. 그만이 주님의 비밀을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 당신의 자녀 됨에 대한 모든 다른 증언들은 불확실하며, 두렵고도 치명적인 속임수가 있을 수가 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요일 5:6). 우리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반복해서 새겨야 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자극하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자신의 영혼이나 이 땅의 거룩한 사람들의 증언에 안주하지 말라. 성령의 증언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은 구하지 말라. 성령의 증언만이 임종의 순간에 효력이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선언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누구와 증언을 하는가이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 그것은 인격적인 증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향하는 것이다. 신자가 죄성이 넘치고 모든 면에서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은 엄청난 복을 수반하기에 대단한 특권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진리를 직접 증언하심으로 그들에게 확신을 주지 않으시면, 다른 그 어떤 증언도 그들의 의심을 제거하거나, 두려움을 잠재우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된 자녀로서의 만족을 줄 수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증인으로 좌정하셔서 그들의 양자됨에 대해 증언하신다. 그는 먼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속죄의 피를 양심에 적용하고,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지각을 조명하시고, 그래서 그 믿는 영혼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위대하고 영광스런 진리의 계시에 대하여 확신을 하도록 준비를 시키신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기에, 완벽한 동의와 조화를 위하여, 자신 안에서 그 증언을 받은 자는 먼저 회개하고 믿는 죄인이 되어야 한다. 이 증언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라면, 그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하여 외인이기에,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며, 자신을 끄떡한 기만 가운데 감추고 있다. 우리가 요청하는 증언은 거룩한 복음에 부합하는 거룩한 증언으로서 거룩한 진리에 대해 거룩한 성령이 거룩한 사람에게 하시는 증언이다. 성령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는 어떠한 불일치나 부조화가 있을 수도 없다. 성령은 진리를 따라 진리와 일치하도록 증언하신다. 막연하고 공상적인 인상, 비전, 목소리를 구원의 증거로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은 두려운 망상이다. 계시가 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하나님 자녀 됨에 대한 증거로 간주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게 되는 모든 단계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다”가 있어야 한다. 그 후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증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의 첫 단계는 사람의 마음 안에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치심과 증언이 따라온다. “그 안에서 너희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엡 1:13).

마지막으로, 그가 증언하는 위대한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다. 성령은 양자의 영으로 강조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롬 8:15).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아들

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6). 이제, 신자의 입양을 증언하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직분이다. 그가 증언한 복된 사실은 우리가 원수, 외방인, 외지인,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탁월하고 거룩한 특권! 영원부터 영원까지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5).- 그들의 모든 죄악은 그들의 복된 보증인이신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었으며, 그들은 "우리의 의로우신 주"에 의해 의롭다고 선언 받았다. 그들은 영원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인을 치셨다. 오 고귀한 상태여! 오 거룩한 특권이어! 오 행복한 백성이여! 그들은 강한 부패성, 깊은 시험, 떨칠 수 없는 연약함, 불같은 유혹, 뼈아픈 낙담, 불길한 섭리, 그리고 종종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의 얼굴을 감추시는 시험을 지나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하나님의 자녀”이며 곧 이후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독자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다. 당신은 성령의 증언을 받았는가? 그가 율법으로 당신의 죄를 책망하셨는가? 그가 당신에게 당신의 죄와 부패를 알게 하셨는가? 당신이 유죄이며 정죄를 받았고, 버림받아 망하였으며, 끝내는 그리스도가 없이 끔찍하게 죽어야 한다는 성경의 기록을 아무런 의심 없이 엄숙하게 당신의 마음 판에 새겨져있는가? 영원하고 거룩하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곧 당신이 서야 할 재판정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관 앞에서 겸비하게 고백하고 탄원을 하기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은 적이 있는가? 아, 엄숙하면서도 폐부를 찌르는 질문들! 당신은 이 질문들을 회피할 수 있고, 헛된 핑계를 댈 수도 있고, "틈이 있을 때"(행 24:25)를 기다릴 수도 있다. 당신은 세상 속에 깊이 빠져드는 것을 통해서 이런 심각한 질문들과 고민을 억누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질문들은 당신을 그곳까지 따라와서 일터의 소음이나 즐거움의 큰 웃음소리 가운데서도 들릴 것이다. 그것들은 죽어가는 당신의 침대로 따라와서 음울하고 적막한 공포의 그 시간 속에서 들릴 것이다. 그것들은 당신을 따라 심판정까지 갈 것이고, 그곳에 모인 군중과 엄청난 폭로가 있는 가운데서도 들릴 것이다. 그것들은 멸망 받은 사람들의 거쳐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마 22:13) 그곳에서도 들릴 것이다 (마 22:13).

죄인이여! 환해졌지만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참소하는 양심의 가책에서 당신은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절대로 죽지 않는 벌레가 될 것이다(막 9:44)! 당신은 하나님의 노여움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을 수 없다.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막 9:43)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당신이 성령의 증언을 갖고 있는지 묻는다. 그가 당신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용서하는 사랑에 대하여, 죄를 정결케 하는 피에 대하여, 의롭다고 칭하심에 대하여, 완전한 구속에 관하여 증언하셨는가? 당신은 믿음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증언을 간절히 구하라”고 말하고 싶다. 만약 당신이 다른 이들처럼 충분하고 명확하게 성령의 증언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낙담하지도 말며, 또한 양자됨에 관하여 성급하고 경솔하게 낙관하지도 말라. 가장 거룩한 신자는 태양이 없어도 여러 날 동안 걸을 수 있다. 다윗과 욥과 예레미야와 우리가 사랑하고 앙망하는 임마누엘의 마지막 순간들에 대한 기록을 읽어 보라. 그리고 그들의 영혼에 때때로 어떤 그림자

가 드리웠는지, 평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기쁨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어떻게 슬퍼했는지 주목하라.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와 마음에 덜 소중했을까? 그들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덜 사랑받는 자녀들이었을까?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증언을 충분히 누리기를 간청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다.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겸손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는 권리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9. 그리스도와 함께 될 우리

출처: *Divine Love* (Birmingham, AL: Solid Ground Christian Books, 2005), 116-141.

저자: 존 이디(John Eadie, 1810-1876) : 스코틀랜드 연합분리 장로교 목회자이자 신학자.

영국 스코틀랜드 스털링주 알바 출생

역자: 박기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일 3:2).

우리가 즐겨듣는 하나님의 자녀 됨은 저 먼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축복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특권이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세상은 우리의 양자됨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의 양자됨의 실재는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 깊게 확신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이 싹을 틔우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자녀처럼 사랑받으며, 보호받고, 거룩해진다. 그리고 자녀의 특권을 지니고, 자녀의 양식을 먹으며, 자녀만의 권리들을 누림으로써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데 적합한 자들이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상태가 존귀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상태의 존귀함은 헤아리기 어렵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며 아직은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인간의 언어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고후 4:17)을 감당할 수 있을지, 또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의심스러운 것은 그것이 계시되었더라도, 그 말은 알 수 없는 양을 수학적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과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비록 현재의 상태가 복될지라도 우리의 경험으로 영원한 상태를 유추하기엔 너무 부족할 뿐이다.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의 파피루스 상자를 열었을 때 울고 있던 아이가 그 즉시 이스라엘의 인도자이자 입법자,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것을 예상할 수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상속자이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롬 8:17)이라고 말한다. 고난과 슬픔은 자녀됨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간고를 많이 겪은”(사 53:3)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많은 장애물과 한계가 있고 많은 죄와 고통과 어둠의 그림자를 지니고 있으며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드리우는 그림자는 너무 짙어서 우리의 죄로부터의 자유와 미래의 영광은 전혀 불가능해 보인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 됨이 현재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다(요일 3:1). 가난한 목수이며, 슬픔의 사람이자 고난당하신 마리아의 아들은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핵심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개념을 따라가면 장래의 복된 모습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될지도 모른다. 비록 그것은 그림에 있어서 전체적인 윤곽도 아니며 영원히 빛나는 물감으로 색칠된 것도 아니지만, 그림의 화룡점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드러난 부분을 통해서 숨겨진 자녀 됨의 존귀함과 영광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선포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는 형식적으로 언급된 것이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 당시 요한의 서신을 받은 성도들은 그 구절을 오해할 수 없었다. 오직 한 분만이 특별한 존귀와 지위를 지니신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진리는 우리 모두의 마지막 상태에 대한 기초이며, 흔들리지 않는 첫째 원리다.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복된 소망이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딤후 2:13). 그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다. 주님의 출생과 십자가의 고난은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는 재림에 대한 약속에도 특별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승천하실 때 열한 명의 사도가 구름 속으로 빠르게 사라져가는 예수님의 희미한 모습을 주목하자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 1:11). 그는 장엄하게 나타날 것이다.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것이다(눅 9:26). 주님의 빛나는 인성은 태양을 덮을 것이며, 그가 가는 곳마다 세상은 놀라게 될 것이다. 그는 그의 본래 신성의 영광 안에서 수많은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만국의 통치자의 왕복을 입고 구속주의 장엄한 왕관을 쓴 채 그의 마지막 최후 심판을 수행하시기 위해 “나타나실 것이다.” 바로 그 후 “우리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 그를 볼 것이다!”

우리가 그의 참모습 그대로 그를 본적이 없다는 것은 그의 가려지지 않은 영광을 결코 본적이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오직 영감 된 연필에 의해 그려진 주님의 초상화만을 바라볼 권리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초상화는 아무리 정확하게 묘사하고 자연스럽게 색칠했다 해도 살아있는 주님과 결코 비교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방해도 없이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볼 것이다. 그렇다. 세상에 오셔서 사시다 죽으신 그 예수님, 눈물도 흘리셨지만 세상을 정복하신 그 예수님, 실제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주에서 가장 빛나고 사랑스러운 “참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흐릿한 환영도 아니고 유사한 모습도 아닌 “참모습 그대로” 말이다. 유다 지방에 사시면서 마을에서 거니며 말씀하셨던 실제 모습 그대로 오시지만, 영광의 주로서 우리 가까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는 희미한 모습도 아니고 잠깐 반짝이는 섬광도 아니며, 자세히 보려고 돋보기로 봐야만 보이는 일부분의 모습이 아닌, 여유 있게 주님 모습 전부를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누가 그 지극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와 같은 이는 아무도 없다. 그의 신비한 모습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으며, 온 우주의 지극히 높은 영광들이 우아한 모습으로 그분을 덮고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지금은 만유의 주가 되셨고, 우리는 베일을 벗고 “참모습 그대로” 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구약시대에는 표상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며 결국 성육신으로 나타나셨으나, 표상은 흐릿했고 육신은 그 안에 신성의 광채가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영광스런 인성의 찬란함과 신성의 광채 속에서 장엄하게 빛나는 크고 흰 보좌에 앉아 높아지셨다(계 20:11).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

그를 볼 수 있는 자격만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를 볼 때 주님의 경이로운 모습을 본 것처럼 그와 완전히 같게 될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이고 가려진 주님의 모습을 보아도 그분을 부분적으로 닮는다면, “참모습 그대로”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충만하고 완벽하게 주를 닮게 될 것이다. 현대 과학의 발견에 의하면 태양 광선이 우리의 얼굴을 비출 때 아주 잠깐 우리 얼굴을 금속이나 유리의 표면처럼 변화시킨다고 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은 단번에 주님의 백성들을 그의 복되고 영원한 형상으로 변하게 할 것이다.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본성 전부가 주님과 같은 모습을 입을 것이다. 그때 우리의 몸은 공중으로 들려올라 주님 앞에 완전한 몸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주님과 일치된 모습을 누가 그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만 막연하게 그 모습에 대해 말할 뿐이다. 주님의 모습을 입게 될 이들은 얼마나 복될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묘사할 수는 없다. 천사들일지라도 그 복된 모습을 충분히 묘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지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지식은 제한되고 혼란스럽다. 지성은 어두운 그림자로 덮여있고, 우리의 마음은 치우친 성향으로 인해 기만당하고 유혹 당한다. 고상한 것들에 대해 형성된 우리의 개념은 별 가치가 없다. 구속 받은 자라도 얼굴이 붉어질 수 있지만 이 땅에서 가끔 소중하게 여겼던 신령한 진리와 영광에 대한 낮고 제한된 관점을 기억할 때 더욱 얼굴이 붉어질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과 아버지께서 구속하신 자녀들 및 영원히 복된 천국에 대한 생각까지도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의 속됨으로 오염되고 만다. 그러나 우리는 제한된 영역을 뛰어넘어 절대적이고 순수한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주의 보좌로부터 오는 빛이 우리의 지성을 전부 비추어 마치 안개를 사라지게 하는 해처럼 우리의 지성을 덮은 모든 그림자들을 몰아내고 사라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9-10, 12). 믿는 자들이 입게 될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될 것이다(골 3:10). 그때 우리가 알게 될 교훈은 얼마나 위대할까! 신적인 본성과 일들은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은혜의 섭리와 연관된 일들은 얼마나 넓고 높을까!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자신을 나타낼 것이며, 만물은 그 안에서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갖게 될 것이며(고전 2:16), 철학이 말하던 것들과 성경에 계시된 모든 것들이 단지 어린아이 수준의 것들이었으며, 그것은 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12).

또한, 우리는 정서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완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거룩함은 지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왕국이 될 것이다.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감정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채워질 것이다(엡 3:19). 당신이 바라는 거룩한 것들과 사모할 만한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영화롭게 된 성도의 인격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은혜가 경배 드리는 형제들의 마음 안에 반영될

것이다. 더 이상 죄로 인한 양심의 고통은 없을 것이다. 죄와 관련된 모습과 악한 결과들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모든 권속들의 얼굴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은 그의 권속들이 서로를 알아보게 만들 것이며, 그들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시 17:15).

누가 이것을 소망하지 않겠으며, 이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지 않을까? 이처럼 온전해진 마음은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친밀한 연합을 매우 즐거워할 것이다.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영광을 기뻐하면서 영원토록 주와 하나 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사권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다. 자녀들과 보좌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천사들일지라도 그들의 사권 위에 그림자조차 드리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고 결코 눈물도 흘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행복은 온전해질 것이다. 어떤 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에게서나 상복 입을 자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형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폐하셨기 때문이다”(딤후 1:10).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계 7:16-17).

마지막으로 우리는 육체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이다. 밝은 하늘이 그리스도를 압도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 또한 하늘로 인해 눈부시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어 분해된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몸은 부활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혈과 육이 이어 받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이 될 것이다(고전 15:50). 사람은 다른 행성이 아닌 지구에 맞도록 지음 받았다. 만일 사람이 복되고 영원한 곳에서 살게 된다면, 그의 몸 또한 그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거나, 밤이 없어 잠들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육신의 제한이 없는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천사들처럼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송하려면 반드시 그의 본성은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그 경이로움 가운데 죽게 될 것이고, 천국의 영광은 즐거움에서 고통으로 신속히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 주 예수께서 주신 복된 약속이 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빌 3:21). 그러므로 우리 몸은 더 이상 육적인 몸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로 되 신령한 몸으로 변할 것이다. 그 신령한 몸 안에 우리의 온전한 영이 거하게 될 것이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고전 15:53). 이와 같이 우리의 본성 전체가 우리의 아름다운 원형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

양자됨은 은혜 언약의 가장 복된 선물이다. -헤르만 비치우스

## 10. 자녀 됨의 신성한 증거

출처: *Christian Retirement: or Spiritual Exercises of the Heart*

저자: 토마스 리드(1776-1841): 영국의 신자 및 작가. 영국 맨체스터 출생

역자: 정영진

구속의 축복이 얼마나 풍부하고 다양한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처럼 그것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은혜의 은사를 충분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이 흘러나오는 그분의 충만함을 알아야만 한다. 분명히, 우리가 자비를 베푸신 분과 자비를 받은 비참한 벌레 같은 우리를 생각할 때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것이다.

행복은 예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고, 구주를 점점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우리는 자연스런 순서에 따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 자녀의 영을 받는다. 이것은 성경과 완전히 일치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갈3:2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4:6). 그 목적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4:4-5).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요일5:10),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의 영 혹은 양심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다. 그래서 요한은 말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요일3:24). 그러므로 우리의 언약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한 자식의 애정은, 양자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 우리 영혼 안에 만들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받은 자녀라 증명하신다.

모든 복을 수반하는 자녀 됨의 이런 즐거움은 사랑스런 아이가 가족 사회와 다정한 부모의 미소 아래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평화와 기쁨을 생성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즐거운 마음 상태가 단지 우리에게 나타났을 변화를 목상한다고 하여 생겨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 볼 때, 여전히 가장 심한 수치를 계속해서 발견하며 심지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를 찬양할 때도 그러하다.

우리의 평화와 기쁨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의 열매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 양심의 진정한 평화와 마음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의 피와 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통해 유지되고 증가될 수 있다.

이 기초 위에 하늘의 은총의 신성한 건물이 세워진다. 사도는 말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6:19-20). 참된 신자들의 모든 즐거운 경험은 성령의 증거와 함께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명료함을 위해 복음의 가장 높은 특권을 향하여 올라가는 많은 단계들로써 그 경험들에 대해 말하고자 노력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서로 섞여 있어서 그것들을 분리하는 것은 건물의 상부구조를 그것의 기초로부터 분리

하는 것과 같고, 아름답게 형성된 몸체에서 팔을 분리하는 것과 같다.

위선자들은 성령의 모든 은혜에 대해 모조품을 갖고 있다. 오, 우리가 “영을 분별”(요일 4:1)하는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모든 기쁨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욘20:5). 모든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살전5:3).

영혼들의 원수는 그의 가라지를 뿌릴 수 있다. 잠시 동안은 그것이 정말 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귀한 곡물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 반대로 새로워진 마음은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수록 그것의 본래적 탁월함이 드러난다. 그것은 마치 곤충과 꽃이 그들의 정교한 형태와 부분의 아름다움이 렌즈의 힘을 통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알게 될수록, 그에게서 더 많은 거룩한 형상을 발견할 것이다. 겸손, 사랑, 순결은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앞에서 동일하게 펼쳐질 것이고, 또한 그 숨씨는 하나님의 것임이 증명될 것이다.

타락한 본성의 잔재는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매력적이며 즐거운 것이다. 오, 내 마음이 이 사랑스러운 형상으로 빚어지길! 우리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태울 모든 것이 복된 예수님 안에 있다. 주여, 당신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내 온 마음이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몇몇 가짜 신자들은 황홀경외에 모든 감정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끔찍하게도, 단순한 육적인 흥분을 성령 안에서의 기쁨으로 대체하며 스스로 속는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친절함을 많이 가질 수 있다. 성령을 소유하면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럼에도 양자의 영께서 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자녀 됨의 확신은 정신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신체의 독특한 기질로 인해, 큰 기쁨의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 있으나 동시에 내면의 안정과 평안함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부패함을 깊이 바라봄으로 인해,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닮아가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감히 인식하지 않으려는 수도 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싫어하고 구주를 진실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기쁨의 황홀경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의 증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황홀한 느낌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는 간과되어야 할까? 주께서 슬프게 만들지 않으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슬프게 만들어야 할까? 오, 참된 평안을 누리는데 있어서 우리의 경험을 바른 기초위에 두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즐거운 특권인 기쁨이 성령의 증거 그 자체가 아니라 성령의 증거의 효과라면, 예수님을 겸손히 따르는 자, 즉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와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붙잡

고 있음을 양심이 증언하는 자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일부 은총을 받은 신자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혼의 영적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는 행복한 마음의 상태를 갈망하기 위해 그의 양심에 대한 성령의 내적증거로부터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느8:10)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속의 은혜의 생생한 느낌을 통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 영혼에 빛이 비추어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 기쁨이 사랑과 확신과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동반되더라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음이 가장 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지 않을까? 어떤 강력한 인상 또는 육적인 흥분에 의해 생겨난 즐거운 기분은 곧 사라질 것이다. 마치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유혹의 때에 넘어지는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말이다(마13:20-21).

그러한 망상을 경계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희망과 위안을 둘 수 있는 견고하고 성경적인 기초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쁨은 거룩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의 바울의 선언이 얼마나 중요하고 결정적인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8:14).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얼마나 많은 행복이 담겨 있는지! 성령께서는 죄인을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신다. 나는 그 자비의 자리로 간 적이 있는가? 성령님은 그 죄인을 죄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거룩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끄신다. 나는 구속주의 마음에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든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서 행복을 찾아가?

성령님은 세상의 허탄한 것에서 벗어나 중한 복음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나는 악한 세상의 탐욕에서 은혜롭게 벗어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전한 기쁨으로 인도함을 받았는가?

양자의 성령이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지도 않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령!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우리의 부족과 하나님의 풍요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양자의 성령을 소유함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

질병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다. 빈곤이 우리의 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다. 친구들이 불충실할 수 있다. 그렇다, 사탄도 우리 마음을 괴롭힐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죄가 정욕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화평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슬픔과 상실을 넘어,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화를 얻고 누릴 것이다.

이러한 복된 사고의 틀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 증언하신다.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는 상속자다 - 오,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롬8:17)다.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재”

(창14:22)라고 명명한 존재의 상속자이고, 언명한 구세주의 공동 상속자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28:18). 그러므로 사도는 기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전3:21, 23)

하나님의 자녀들은 높은 특권을 가졌다고 해서 고난에서 면제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여기 아래에 사는 동안, 복되신 예수께서 영광으로 가신 길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8:17)

오, 사랑스런 구세주여. 당신의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 받았을 때, 저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하소서. 만약 내가 당신과 함께 고난 받는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러한 일을 능히 감당하겠습니까?(고후2:16) 나를 보면 너무나 연약하지만, 당신 안에 총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분명히 이겨낼 것입니다.

오, 내가 당신의 가족에 입양되었다는 이 신성한 증거를 매일 소유하게 하소서. 이 증거는 시련과 시험을 견디며, 부요에서 겸손케 하고 고난에 인내하며 죽음 앞에 평안을 갖게 하고 영원한 기쁨을 줄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도움과 인도자이신 주님의 자비로 이 복을 부어주소서.

~~~~~

하나님의 아들은 모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들은 죄에서 떠나며, 자기 의에서 떠나며, 세상에서 떠난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입양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훈련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그들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들은 성경으로 인도된다. 그들은 기도로 인도된다. 그들은 거룩으로 인도된다. 이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여정을 따라가는 다져진 길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들에게 매우 쓰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거룩을 매우 달콤하게 만드신다. 이를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다.

- J. C. 라일

당신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확립된 영원한 관계 속에서 달콤한 기쁨을 누려야 한다.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의 형제이다. 당신은 입양되었고, 하나님은 입양을 취소하지 않으셨다. 종생은 있지만, 새롭게 받은 생명이 죽는 일은 없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에게 태어났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별은 쏠이 될 수 있고, 태양과 달은 붉게 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영생을 가진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아이, 상속자, 왕자처럼 걷게 하라. 그는 시간과 영원도 파괴할 수 없는 주님과 그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이 예수께서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로 나신 이유였고, 이에 입양된 아들인 우리는 자녀의 특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C. H. 스펠전